논어 7편 술이 17장 · 쓰기 연습

子所雅言：「詩、書、執禮，皆雅言也。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子 所 雅 言 詩 書 執 禮 皆 雅 言 也

본문 교정: 藝禮 → 執禮 (논어상설 원문의 執禮와 대조)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